

일상 속 사물의 유래 찾아가는 인문학 오디세이

일상 속에 숨어있는 뜻밖의 세계사

찰스 페네티기 지음, 이형식 옮김



본래 우산은 중동에서 강렬한 태양빛을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됐다. 우산의 어원인 라틴어 '그늘'(Umbra)에 흔적이 남아 있다. 우산과 파라솔은 유럽에서 18세기까지 여성들의 액세서리였다. 미국에서는 그 후에도 여성들의 전용물로 인식됐다. 그래서 비가 오면 남자들은 모자를 쓰거나 비를 그대로 맞았다. 비를 피하려는 행동은 남자답지 못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남자들도 우산을 사용하게 된 것은 우산을 사랑한 한 영국신사의 평생에 걸친 '투쟁' 덕분이다. 영국 조너스 헨웨이는 1750년부터 30년 동안 우산을 들고 다녔다. 마부 등 많은 사람들은 그를 나약한 사람으로 대하며 야유를 보냈다. 결국 영국 신사들도 그를 따라서 우산을 들고 다니게 됐다.



유럽 남자들은 18세기에 들어서야 우산을 사용할 수 있었다. 프랑스 화가 구스타브 카유보트의 '파리의 거리:비오는 날'(1877년).

2장 '생일, 결혼, 그리고 장례'에서는 결혼풍습과 결혼반지, 웨딩케이크, 웨딩마치, 흰 웨딩드레스, 검은 상복 등의 유래를 살핀다. 결혼식 때 하얀 옷을 입는 풍습은 16세기 영국과 프랑스에서 시작됐고, 18세기 후반 결혼식의 표준색이 됐다. 장례식때 검은 옷을 입는 풍습은 '죽은 친척, 적, 또는 이방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17세기 유럽에서 유행한 '애교점'은 천연두로 인해 생긴 곰보자국으로부터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는 수단으로 붙여졌다. 오른쪽 뺨에 붙이면 '결혼했다', 왼쪽 뺨에 붙이면 '약혼했다', 입가에 붙이면 '끼꺼이 놀아나겠다'는 의미로 통용됐다. 백신 개발로 필요 없어진 애교점 상자는 콤팩트 분을 넣는 상자로 쓰이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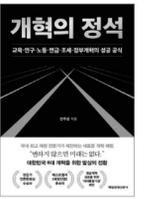
안경과 선글라스, 콘택트 렌즈 유래가 눈길을 끈다. 안경은 13세기 말 이탈리아에서 발명됐다. 선글라스 기술은 15세기 이전 중국에서 개발됐다. 판관들이 법정에서 눈을 가리기 위해 사용했다. 콘택트 렌즈를 최초로 제안한 이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이다. '눈의 코드'라는 책을 통해 물을 이용해 시력을 교정하는 콘택트 렌즈를 제안했다. 실용적인 콘택트 렌즈는 1877년 스위스 의사가 개발했다. 왕과 왕비, 귀족층에서 유래된 사물들도 흥미롭다. 하이힐은 프랑스 루이 14세가 유행을 주도했다. 작은 키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구두 굽을 높은 하이힐을 애용했다. 이를 보고 귀족과 귀부인들도 굽 높은 구두를 신었다. 디지털 파이는 16세기 영국 엘리자베스 1세때 등장했다. 여왕은 고기·생선을 채우는 파이 대신 씨를 빼고 절인 버찌를 넣은 새로운 파이를 원했다. 영국인들은 검푸른 허틀베리를 넣은 새 파이를 좋아했고, 미국에서 '허클베리 판'이라는 개구쟁이 이름으로 쓰였다.

새 책은 일상 속 사물로 쓴 세계사다. 한 사물은 한 개인의 발명이 아닌 사회 구성원들의 오랜 시간에 걸친 산물이다. 저자는 방대한 참고문헌과 폭넓은 취재를 통해 일상 속 서양문화의 유래를 찾는 인문학 탐사를 한다. 독자들은 두툼한 책을 읽어가며 한번쯤 궁금해 했을 일상 속 사물들의 유래와 역사를 상세하게 알 수 있다. <북피움·3만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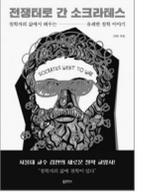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불안을 먹는 사람들=미국에 유행하는 식이요법을 다루면서, 현대사회에 팽배한 가난과 비만 문제까지 둘러본다. 촉망받는 요법인 음식 배제 식이요법, 식사 패턴화 등을 짚으면서 그 효과와 방법을 알려준다. 적절한 식사가 무엇인지, 언어구조주의와 음식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언급하고 식사를 '총체적인 사회적 사실'로 간주한다. 그러면서 이상적 식사 모형과 패턴이란 결국 하나의 문화와 다름없음을 역설한다. <루아크·2만9000원>



▲개혁의 정석=개혁이란 백지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기보다 기존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출산율 회복에 성공한 유럽 국가들의 예와 구글, 아마존 등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한국형 개혁'의 방법을 모색한다. 철의 삼각형 등 전문적인 예산 배정 용어나 규제 정책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한국형 부자 과세와 정책의 시의성 등을 날카롭게 분석한다. <매일경제신문·2만원>



▲우리의 관계를 돌봄이라 부를 때=생애주기 속에서 인간관계의 필수적 요건이 돌봄이라는 데 목소리를 높인다. 돌봄의 윤리학적인 치료자로 남는 것이 아닌, 서로에게 동반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요양시설과 집을 이분하는 발상 또한 돌봄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며, 또 또한 결국 돌봄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주지시킨다. <북루멘스·1만9000원>

▲전쟁터로 간 소크라테스=우리 전쟁, 이념 전쟁 등 국제분쟁의 불씨가 계속되고 있는 와중 전쟁사와 인간 육망의 본질을 철학적으로 관통한다. 분쟁을 모티브로 피타고라스, 탈레스부터 퀴레네학파, 에피쿠로스까지 방대한 철학을 소개한다. 쾌락주의, 정반합의 논리 등에서 올바른 삶의 태도를 유추할 수 있다.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라는 트라쉬마코스의 논지도 등도 생각의 공간을 마련한다. <북루멘스·1만9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이리의 형제6=괴물들의 무리와 노란 정면 대결이 펼쳐진다. 인간보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믿던 노란, 그리고 자신이 인간과 같이 평범한 존재이길 바라는 '유랑'의 모험기는 스티틀이다. 일행 중 '사랑' 또한 위험에 처하지만 동료들은 괴물들 앞을 막아서면서 반격을 예고한다. 하유랑이라는 공간에서 인간과 타 종족, 선악 등이 대립하는 판타지가 펼쳐진다. <창비·1만3000원>

이 원하는 '황금파이' 레시피를 찾아 그대로 파이를 요리한다. 황금파이는 할머니가 특별한 비법으로 만들어주던 음식이다. 이들은 마을 시식회까지 열고 나눔의 기쁨을 즐긴다. <이지북·1만2000원>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편의점=사랑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 만드는 파이는 친구들과 나눠 먹을 때 더 맛있다. 동연이와 신비로운 친구들은 편의점을 찾는 손님들

▲도치야=가시에 찢릴 것을 염려하는 동물들이 다가오지 않아 고슴도치는 늘 혼자다. 일부러 찢는 것도 아니지만 동물들은 가시에 찢려 화를 낸다. 아기 동물들은 도치를 외면해, 작은 마음에도 가시가 돋는다. 그러던 어느 날 외로움에 못이긴 도치는 동물들을 뺨 차버리고 돌은 늑대 뒤통수에 쫓긴다. 도치는 늑대에 잡아먹힐까? <어린이작가정산·1만3000원>

이탈리아 곳곳에 남겨진 신화·역사·문학 발자취 찾아가다

그랜드투어 이탈리아

강대진 지음



그랜드투어(Grand Tour)는 17세기 중반부터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 상류층 귀족 자제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이탈리아 등을 돌아보며 문물을 익히는 여행을 말한다. 세계적인 문화 고전은 700일 동안 떠난 이탈리아 여행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고, 방대한 분량의 '고대의 이탈리아 여행기'를 썼다.

이탈리아는 찬란한 서양문화의 근간을 발견할 수 있는 나라로, 긴 장화 모양의 국토에 촘촘히 박힌 각각의 도시마다 슬한 신화와 역사와 이야기를 품고 있다. '세계와 인간을 탐구한 서사시 오뒷세이아' 등을 통해 오랫동안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고전들을 소개해 온 강대진 경남대 연구 교수가 '그랜드 투어 이탈리아'고

전학자와 함께 둘러보는 신화와 문학의 고향'을 펴냈다. '그랜드 투어 그리스'에 이은 두 번째 책이다.

5장으로 구성된 책은 이탈리아를 찬찬히 돌아보면서 신화와 역사, 그리고 문학적으로 의미를 갖는 유적지와 유물을 찾아간다. 더불어 '변신 이야기' 등 다양한 고전을 소개하며 이야기를 풀어간다.

여행 동선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방식을 택했다. 시칠리아에서 시작해 이탈리아 반도의 남부와 중부, 도시 로마를 지난 북부로 올라가는 동선이다. '그리스 문화-로마 문화-중세-근대 이탈리아 문화' 등 연대기 순으로 역사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인문학 여행의 시작인 '제 1장 시칠리아'에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도시가 등장하지만 그리스 식민지들이었던 이들 도시에는 희랍과 로마의 문화가 혼재된 유적이 많다. 시칠리아섬의 관문인 팔레르모의 팔라티나 예배당,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계스타의 신전과 극장, 유네스코 마크의 모델이 된 콩코르디아 신전 등을 만나는 아그리젠토 등이 대표적이다.

이탈리아 남부의 대표도시인 폼페이에는 "약 2000년 전 사람들의 삶이 거의 그대로 얼어붙은 곳"이다. 서기 79년 베수비우스 화산 폭발로 화산재에 묻혀 버린 도시는 땅속에 잠들어 있었고 18세기쯤부터 발굴되기 시작해 지금까지 도시의 3/4 정도가 정비됐다.

나폴리와 로마 주변에는 전성기 로마의 유적이 많다. 전차 경주가 벌어지던 대경주장, 콘스탄티누스 개선문, 네로의 황금 궁전 자리를 차지한 콜로세움, 가장 오래된 개선문으로 꼽히는 티투스 개선문 등이다. 중세말기와 르네상스 유적이 산재한 이탈리아 북부에서는 단테의 고향이자 후피치 궁전, 대성당 등을 만나는 피렌체와 미술관 천국인 베네치아를 소개한다.

본문에서 자주 언급되는 '신곡', '아이네이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등은 별도의 박스를 통해 설명했으며 300점이 넘는 사진과 지도, 그림, 건축물 모형도 등 풍부한 이미지와 로마의 역사를 한 눈에 살필 수 있는 연표를 함께 실었다. <도도네·2만6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